

우리·신한 CEO, 중징계 예상...“나 떨고 있니”

손태승 회장, 직무정지 시 3연임 불가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시 3연임 제동
KB, 피해자 구제 노력으로 경징계
우리도 분조위 조정 수락 가능성 ↑
소보처 제재 수위 감경 의견도 기대



25일 오후 열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 우리금융·신한은행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몰고 온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25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5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은행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 판매 시 상품에 대한 기본 내

라임 펀드 사태 금융 CEO 징계 추진 현황		
금융사	징계 추진 현황	일정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직무정지	25일 제재심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문책경고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 주의적경고	제재심 확정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직무정지, 박정림 대표 문책경고	3월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신한금투	김형진 전 대표 직무정지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 직무정지	

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뜻한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두 은행은 당초 예고된 제재 수위의 경감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징계수위에 따라 조직 안정과 향후 경영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을 경우 현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또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두 번 연속 중징계를 받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원안대로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행장 3연임과 금융그룹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물론

금감원 제재심 의결 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징계안 확정 후 결과에 불복한다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만큼 변수도 존재한다.

●KB증권과 IBK기업은행 절차 따를까?

라임 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금융사에는 제재 경감을 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17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재의 법·규정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 보호를 잡는 회사에 대해 감경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찾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 제재심 직전인 23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판매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매사의 소비자 보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가장 먼저 분조위를 진행한 KB증권의 경우 피해자들에 40~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되는 만큼 우리은행도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양사는 최근 열린 IBK기업은행의 제재심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 심의 결과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한 단계 경감했다. IBK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의 출석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소보처는 금융사가 펀드 원금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평가해 제재 수위에 대한 감경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라임펀드 판매 은행은 금감원의 제재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 반면 증권사는 3월 초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KB국민-기술보증기금, 뉴딜지원 업무협약



KB국민은행이 최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한국판 뉴딜을 선

도할 기업의 상호 발굴 및 추천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금리우대와 보증료지원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줄 예정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민간주도 한국판 뉴딜 지원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한銀 어린이 대상 ‘랜선 은행탐험’ 진행



신한은행이 28일까지 어린이 대상 온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랜선 은행탐험’(사진)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체험학습과 현장방문 등이 어려워진

어린이 고객을 위해 기획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화폐의 개념과 발달과정, 금융의 의미, 금융기관 이야기, 설 세뱃돈 관리 등으로 콘텐츠를 구성했다. 또 강사와 어린이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비대면 금융교육, 신한은행 캐릭터 솔(SOL)과 함께하는 OX퀴즈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도록 했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 쏠쏠”...저축은행 파킹통장 인기

하루 예치해도 연 1.5~2% 금리 제공
3월말 시행 오픈뱅킹 고객 유치 전략

하루만 맡겨도 연 1.5~2.0%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파킹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파킹통장은 마치 차를 잠시 주차(Parking)하듯 은행에 짧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말한다. 연 0.1%의 이자를 주는 주 소 은행의 일반적인 수시입출금 통장에 목돈을 쌓아두기에는 이자가 아쉽고, 바로 투자할 곳을 정하지 못한 고객이 이용하기에 적격이다.

2일 출시한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뱅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은 하루만 맡겨도 세전 1.6% 금리를 제공한다. 예치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연 1.7%, 6개월 이상 연 1.8%, 9개월 이상 연 1.9%의 금리를 준다.

상상인저축은행 모바일뱅킹인 뱅뱅뱅에서 가입 가능하다.

페퍼저축은행도 8일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페퍼블루 파킹통장’을 선보였다. 예치금액 300만 원 이하는 연 2%의 금리를, 300만 원부터는 연 1.5% 금리를 적용한다. 페퍼저축은행 모바일뱅킹인 페퍼루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밖에도 OK저축은행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 웰컴저축은행 ‘직장인사랑보통예금’, JT저축은행 ‘비대면 보통예금’ 등이 대표적인 저축은행 파킹통장 상품으로 꼽힌다.

저축은행 파킹통장 경쟁은 3월 말 시행하는 오픈뱅킹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있다. 오픈뱅킹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로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고객



상상인저축은행 ‘뱅뱅뱅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입장에서 쓰기 편하고 기능이 좋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만큼 저축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입출금을 자주 이용하는 파킹통장 이용자를 향후 오픈뱅킹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NH농협, 주택청약저축 신규 이벤트

NH농협은행이 4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희망찬 새학기, 스라벨을 응원해!’ 이벤트는 만 7~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출발, 청춘을 응원해!’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과 함께 NH농협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별로 611명씩을 추첨해 LG 노트북, 갤럭시버즈 등 경품을 준다. 또 ‘힘내요 대한민국! 힘내요 우리!’ 이벤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며 799명을 추첨해 치킨 교환권을 제공한다.



우리금융, 취약계층 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우리금융이 21일 취약계층 특성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사진)을 진행했다. ‘특성하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디지털·정보통신 기술(ICT) 학습을 위한 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성하고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성하고 학생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웹디자인 등 온라인 교육 수강권을 지원하고, 우리금융의 ICT서비스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직원들이 전문 멘토가 돼 실무 역량 배양 멘토링 교육을 진행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3일(화) 음력: 1월 12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라.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에 미뻗기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함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자제하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제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횡재수가 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시킨다. 먼저 상대의 입장을 살펴라. 움직여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뭄과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둠도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방동을 삼가 하라.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밀바닥은 흐르다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소송사건은 오래 가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위 위기를 잘 극복하면 큰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부리지 말라.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생각대로 실행하라. 좋은 결과가 온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를 보게 되니 내일 행하라. 내일은 길한 날이다. 서두르지 말라.	

오늘의 날씨				23일(화)			
	서울 0/20 -5 -5		인천 0/20 -5 -3		춘천 0/20 -6 -6		
	강릉 0/20 -1 7		대전 10/20 -5 7		전주 10/20 -4 7		
	광주 10/20 -3 8		대구 0/20 -2 10		부산 0/20 1 12		
	창원 0/20 -1 10		제주 0/20 3 9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22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민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